

# 山寺不二... 명산에 명찰있다



山寺不二, 산과 절은 둘이 아니다. 상구보리 하회중생(上救菩提 下化衆生)의 위대한 뜻을 실현하기 위해 출가하는 것을 입산(入山)이라 이른다. 왜 절에 간다 하지 않고 산에 들어간 다 했을까. 지고한 불교의 가르침에 견줄만한 그 무엇이 산에 들어 있는 것일까. 그렇다. 산에는 그 무엇이 가득 하다. 시인 고은은 그의 시 '산'에서 자신이 곧 산이라고 노래한다. 시인의 전인격과 산은 다르지 않다.

"젊은 날 산에 들어가/내 마음 가득 히/산 소나기에 젖어/겨울이면 겨우살 이 나도 산이었다" 산을 떠나서도 "여 기 저기 떠돌다가/불현듯 고개 들어/ 바라 보면 거기 산이었다"

**금강산 세존봉** 법기보살이 1천2 백 권속들과 함께 머무르며 설패하고 있는 금강산. 흰 눈을 인 봉우리를 좌우보치로 삼고 있는 세존봉의 모습이 우람하다. (사진=한관수 기자 '금강산')

##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3>

### 금강산은 어떤 산

금강산은 부처님 땅이다. 명칭부터가 경전에 유래하고 있으며, 삼국시대 스님들에 의해 금강산으로 불리게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이전에는 신선의 산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신리가 그곳에 절을 짓고 탐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불교와 연관되기 시작했다. 14세기에 이르러 그 이름이 금강산으로 굳어졌다.

금강산의 명칭은 《화엄경》 '제보살주처론'에 나온다. "바다 가운데 금강산이란 곳이 있는데 예로부터 여러 보살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다. 지금은 법기(法起)라는 보살이 있어 그 권속과 여러

**화엄경서 명칭유래**  
법기등 1200보살 주석  
"한번 보면 지옥 안가"

보살들 1천2백인과 함께 그 가운데 항상 머무르며 설패하고 있다." 금강산의 다른 이름으로 쓰였던 열반산, 중앙성(衆香城), 기달산(訶山)이란 명칭도 마하반야경과 화엄경에서 유래했다.

보살과 권속들은 누구인가. 금강산의 최고봉인 비로봉(1638m)을 비롯 지장봉 세존봉 상관음봉 문주봉(文殊峰) 중관음봉 수미봉 삼왕봉 법기봉 석가봉 미륵봉 천불산 등이 둘러치고 있다.

고려말에는 금강산 순례가 불교의 신앙행위로 유행하기도 했다. 최해의 《신동국여지승람》에는 "금강산을 한번 보면 죽어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겨 고관급리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아내와 자식을 이끌고 다투어가서 예배한다"는 기록이 있다.

산은 어머니이기도 하다. "허리케로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등 굽어주던/ 어머니 정이/아리도록 아리도록 산이 좋아/산길을 걷는다." (수안스님 시 '산길을 걸으며'에서)

산은 시인의 전존재이면서 어머니이다. 한국인에게 산은 그런 곳이다. 또한 산성상의 표상이다. 산에 오르라고 하는 것은 산정에 올라 천하를 정복하려는 욕망의 성취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속(俗)의 단함을 놓고 다른 공간, 곧 신성공간에서의 하늘과의 만남을 가하려는 신비와의 겸허한 참여이다.

그래서 산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가서 봐야' 한다.

산은 불교와의 관계 이전에 우리 민족의 삶터였다. 단군신화의 큰 배경은 산이다. 백두산정 신단수 아래 천평(天邱)에 도읍했는데 이를 신시(神市)라 했다.

애초에 절이 산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성문사 이불린사 등 불교초창기의 절들은 산에 위치하지 않았다. 산과 절은 저만치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불교가 가장 먼저 흥성했던 신라 서울 안의 일곱 군데 가람도 모두 서라벌 들녘에 있었다.

그러다 신라시대 후기 '너희 나라 영취서산에 독룡(毒龍)이 사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금강계단 물을 끌어 이것(가사 1백과 사리 1백과)들을 봉안하라는 문수보살의 수기를 받은 자장율사가 신라 불국토사상을 펼치면서 산과 절은 동어처럼 불리게 시작됐다. 오대산 월정사, 태백산 정암사, 영취산 봉도사, 소백산 부석사, 지리산 단속사 화엄사 실상사 쌍계사, 속리산 법주사, 모악산 금강사, 가야산 해인사, 비슬산 대전사, 금정산 법어사, 팔공산 동화사, 강릉 사굴산 굴산사, 영월 백악산 흥령사, 문경 화양산 봉암사, 금강산 유점사 등이 그때부터 산중에 터를 잡았다.

불교의 구도업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암자와 토굴이다. 인적의 범접을 꺼려해 삼신유곡에 자리를 잡았다. 때론 허름한 너와집, 한간 공양간과 선실이 전부인, 그래서 더욱 치열한 정진의 높이를 보여준다. 산에 암자와 토굴이 있어 비로소 산은 완결된다.

김현준은 그의 책 《사할 그 속에 깃든 의미》에서 △우리 민족의 뿌리깊은 산악신앙 △외척반역용 거랑전축 △불교의 초세속주의(超世俗主義) 경향 △풍수지리학의 산천비보설(山川比輔說)의 영향 △조선시대 배불정책에 따른 산중 은거 등의 이유로 산과 절의 관계맺음을 풀이한다. 이 가운데서도 조선시대 배불정책이 사할이라고 하면 으레 산사(山寺)를 떠올리게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적했다. 산 이름들이 불교의 용어를 채택하고 있음은 그

만큼 산과 불교의 합일을 말해주는 것이다. 금강산은 어떤가. 금강같은 굽은 지대로써 파안에 도달하는 법을 실하는 산이다. 빼어난 절경에 1만2천 봉우리, 8만 9천자라 했으니 가히 "금강산경(經)"이다. 풍도사를 감싸고 있는 영취산(또는 영축산, 취서산)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법한 인도의 영취산과 닮았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었다. 스님들이 자신을 가리켜 '금정산인' '가야산인' 등 산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산과 불교의 밀접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중국 선불교의 거봉인 백장회해(百丈懷海) 황벽회운(黃檗希運) 운문문언(雲門文偃)스님 등은 선문을 열었던 산의 이름을 법호로 썼다.

세시기에 나타난 산과 불교를 봐도 둘 사이의 혈수 없는 관계를 알 수 있다. (동국세시기)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그것을 입증한다. 보은 속리산의 정봉에는 대자재천왕(大自在天王)의 사당이 있었는데 매년 10월의 안일(寅日)이면 법주사로 모셔와서 제사를 올리고, 산중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음악

### 구산선문(九山禪門)

한국선불교의 정통은 신라말~고려초에 이르는 시기 아홉 곳의 산을 터전으로 일어나면서 확립됐다. 아홉 산문은 △가야산문 보림사, 전남 장흥 △실상산문 실상사, 전북 남원 △동리산문 태안사, 전남 곡성 △성주산문 성주사, 충남 공주 △봉림산문 봉림사, 경남 창원 △사자산문 흥령사, 강원 영월 △사굴산문 굴산사, 강원 강릉 △회양산문 봉암사, 경북 문경 △수미산문 광조사, 황해 해주.

한편 고려시대 천태종의 대표적인 사찰 6군대를 천태육산(天台六山)이라 부른다. 개성 국청사, 월성산 약사사, 강진 만덕산 백련사 등이며, 개성 국청사에는 우리나라 천태종의 개창조인 대각국사 의천스님이 머물며 천태교관을 강의했다.

### 경주 남산

'겨레의 땅, 부처님의 땅'으로 불리는 경주 남산. 옛 신라의 도읍이던 서라벌 남쪽에 솟은 높이 468m, 남북 길이 8km, 동서 너비 4km로 높지도 크지도 않은 산이다. 금오봉과 고위봉의 두 봉우리에서 흘러내리는 40여 계곡과 산줄기 곳곳에는 절터를 포함한 122개소의 건물지, 석불 53구, 석탑 64기, 석등 16기가 남아 있다. 신라 건국설화에 나오는 나정(羅井)과 신라의 풍물을 맞았던 포석정 등이 자리해 기이 거례의 땅, 부처님의 땅이라는 표현에 한치의 과장이 없는, 1천년 전 신라인들이 영안했던 불국토의 숨결을 그대로 전해준다.

### 신신각

민간의 산신신앙과 불교가 만나는 지점에 산신각이 있다. 중국에서 들어온 불교의 토착화 과정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산신신앙과 산악승배사상을 수용, 사할 안에다 전각을 지었다. 산신은 원래의 불교와는 관계없는 토속신이지만 불교의 진리를 보호하는 호법신중(護法神衆)이 되어 호랑이 혹은 노인의 모습(산신)으로 묘사되어 대개 산신각 안의 탕좌에 형상화되었다. 산신은 가람 수호신의 기능과 함께 산속 생활의 경운을 비는 외호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신도들은 재앙 소멸의 장소로 산신각을 찾고 있다.



수직으로 솟은 기암 위에 아스라이 자리잡고 있는 관악산 연주대.



경주 남산의 마애입상. 남산의 40여 계곡과 산줄기에는 석불만도 53구에 이른다.

## 입산은 곧 출가... 구도 수행처

금강·두타·가야산 등 불교용어에서 인용  
자장율사 이후 산과 절 동의어로 사용

을 배움과 며칠 간의 행사를 치렀다는 것이다.

### 수미산(須彌山)

불교의 우주관에서 나온 상상의 산으로, 세계의 중심에 솟아있다고 한다. 이 산을 중심으로 4대주가 동서남북으로 있고, 하계에는 지옥, 수미산의 가장 낮은 곳이 인간계이다. 수미산 중턱의 사방에 사천왕이 있다. 수미산의 정상에는 33개의 궁전이 있어 33천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찰을 건립할 때 그 가람배치를 수미산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사찰에 들어서는 일주문은 천상계를 넘어서 불지(佛地)를 향해 나아가는 자의 일심(一心)을 상징하고, 사천왕문은 수미산 중턱에 올라왔음을, 불이문에 도달하는 것은 수미산 꼭대기에 이르렀음을 상징하였고, 부처님은 그 위에 있다고 하여 법당 안의 불단을 수미단이라고 부른다.



통도사 신신각. 우리나라 불교에만 있는 전각으로 불교와 산악승배 사상의 접목을 보여준다.

구산선문 가운데 가장 늦게 성립한 경북 문경 회양산 봉암사.



자연을 연출하는 — 우리옷

**연/지/곤/지**

계량한복을 50% 할인가격(₩80,000)으로 판매합니다. 사업하실 분에게는 위 가격에서 충분한 마진을 드립니다.

★ 단체복(승복, 원아복, 사원복, 도복)을 최저가로 주문받고 있습니다.

● 상담문의 ●  
본점 02)3461-8552-3 각전점 507-7852  
평촌점 (0343)88-7852 본당점 (0342)702-7373



IMF를 이기는 불자들의 지혜 - 우리옷을 입읍시다.

농민연합회, 농민연합회, 농민연합회, 농민연합회

(농민연합회 건넌편)